

# 계간 **미주문화**

2008

여름호



**미주한국문화인협회**

## 등단제도를 돌아보다

회장 김동찬

글을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다. 물론 그 때는 글이 담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소수가 독식했다. 법전이 어려운 말로 돼 있는 것이나 의사들의 처방전이 그렇게 휘갈겨져 있는 것도 법관들이나 의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최초로 법을 글로 기록한 함무라비 법전에서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는 기계가 발달함으로써 누구나 책을 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글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사용하는 정신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이다. 누구나 미적인 창의력을 동원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열린시학』 편집인, 글마루, 오렌지글사랑모임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저서로는 산문집 『심심한 당신에게』, 시조시집 『신문 읽어주는 예수』, 시집 『봄날의 텃밭』이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ktc>

그런데 한국 문단에는 등단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등단한 사람에 한해 문인이라 인정하고 문학지에 글을 실어준다. 등단한 필자의 나쁜 글은 문학지에 실리지만, 등단하지 않은 필자의 글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 제도는 일제시대에 일본의 문학 관행을 받아들인 후, 우리 한국 문단의 전통으로 고착됐다.

등단제도는 나름대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가난한 시대에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우리의 형편에는 비쌌던 출판 기회를 엄선한 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유용했다. 최소한의 창작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글을 써대는 필자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도 있고, 등단하려고 하는 문인도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전문 문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이제 등단제도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우선 인쇄의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책을 출판하기 쉬워졌고 출판사와 각종 신문, 문학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과거에 비해 엄청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등장으로 까다로운 인쇄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자가 독자에게 수시로 직접 글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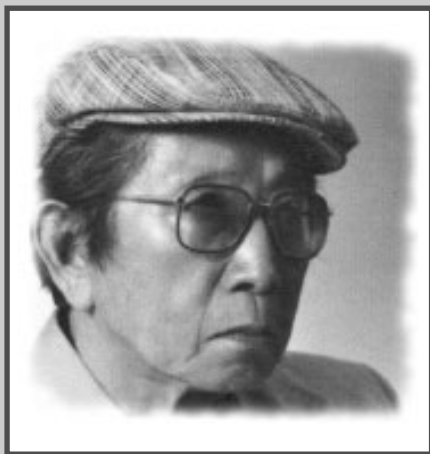
실제로 많은 문학지들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량만 보고 한 호에 칠, 팔 명씩 신인들을 선정, 배출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숙련된 운전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미숙하지만 최소한의 법규와 기술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발급해주는 운전면허와 같이 등단이 쉬워졌다. 등단제도는 문인이 아닌 사람이 글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많은 문학지 편집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일부 문인들은 이런 현상이 무자격 문인을 양산하게 된다고 비판한

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기준 - 자격을 심사위원 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또 문학작품의 질은 등단제도를 통해서 등단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등단 이후 작가 개인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글을 썼는가 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외국 영화를 자유롭게 수입함으로써 한국 영화가 한류를 일으키는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처럼, 등단제도라는 온실의 문을 열어 제침으로써 문인들도 더욱 튼튼한 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등단한 문인의 글이라서가 아니라 좋은 글이라서 책에 싣는 풍토가 살아야 한다.

한국 문단의 오랜 전통이 돼 왔고 편리함과 장점도 있는 등단제도를 당장 버리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의 등단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고 등단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진정한 작가가 되는 길은 단 한번의 등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머나먼 수행의 여로가 아니겠는가. 현재의 등단제도가 등단한 사람끼리 글 쓰는 일을 독점함으로써, 천부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싶다.

## 김용팔 시인 추모 특집



문단의 원로 김용팔 시인께서 2008년 2월 1일에 향년 94세를 일기로 작고하셨다. 김 시인은 2005년 10월, 혈압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미주와 한국 문단뿐 아니라 세계 문단에서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셨다. 그리고 2005년에는 세계시인협회에 의해 노벨문학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가족에 의해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장례는 토랜스에 위치한 백삼위 성당에서 거행되었는데 2월 6일에는 연도미사, 2월 7일에는 장례미사 후 장지인 로즈힐에서 하관식이 있었으며 모든 장례 일정은 경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김용팔 시인을 추모하는 이번 특집에는 김용팔 시인의 자작시, 문인귀 시인, 광상희 시인, 세계시인협회 창설자 및 회장을 역임한 인도 시인 Syed Ameeruddin, 김연숙 시인의 추모글과 고 박목월 시인이 생전에 김용팔 시인을 평한 글이 실렸다.

## 김용팔 약력

1914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2008년 캘리포니아 필란에서 돌아감.

### ■ 학력

1936년 광주보통학교 졸업.

1964~65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태두 양주동 박사와 문학평론가 백철 박사의 문하에서 근대 사상주의 전공.

1966~67 국문학 박사 과정.

### ■ 경력

1945~65 경기여고, 숙명여고, 수도여고 재직.

1964~70 건국대학 문과대학에서 詩論 강의.

### ■ 시집

『폐허』(1952), 『두꺼비의 말』(1970), 『시간의 맥박』(1990),

『메랑주씨의 카메라』(1995), 『자화상』(2000), 『귀거사』(2001),

『뜸부기 소리』(2003).

### ■ 평주

『시와 평설』(2001), 『해외 시』(2002)

### ■ 산문집

『레바논의 숲속길』(1995)

### ■ 수상

1985년 캘리포니아 세계시협회로부터 <우수시인상> 수상.

1990년 미주한국문인협회로부터 <미주문학상> 수상.

1993년 미국 메릴랜드 주 국립도서관 시부로부터 <시 분야에서의  
현저한 성과상> 수상.

1998년 영국 켄브릿지 國際傳記本部로부터 <교육가로서 시인으로  
서의 업적상> 수상.

2000년 인도시인협회로부터 <새천년시인상> 수상.

### ■ 문학단체 소속

한국문인협회(1953~), 국제펜클럽한국본부(1953~),

미주한국문인협회고문(1993~), 해외시조고문(2000~)

## 김용팔 시인의 시

매

겨우내 나의 매는  
코너 테이블에 앉아  
그림 있는 카펫 위에  
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우연히 난 차양을 걷어올렸다.  
밝은 아침 하늘이 거기 있었다.

그는 깃을 펴면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다.

이에 난 창문을 열었다.  
그는 알겠다는 듯 날아 나갔다.  
한참을 온갖 안간힘으로 파닥이더니  
이윽고 구름까지 솟아올랐다.

구름 뚫고나간 매는  
눈앞이 흰하게 트이자  
원형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바람처럼 제 길을 날아가고 있었다.



## 메아리

천지에  
나를 지켜주는  
넋이 하나.

언제고 여운만을 되울리면서.  
저만치에 사랑하는 계시.

눈짓이나  
느껴옴 따위가 아닌...

어느 맑은 날  
저 푸른 여운 향하여  
학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어

나는 이 좁다란 길을  
올라야만 하는 것이다.

## 창

— 리일락꽃이 필 때

한 점 미풍에도  
코 끝에 스쳐오는 것.  
잊혀진 누군가의  
숨결 같은 것.

나도  
향내이고 싶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숨결이고 싶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  
웃어대는 꽃송어리들.  
그것들은 내 지난날들을  
연보라빛으로 피워내고 있다.

달혀진 고요 속에  
자아의 귀갑(龜甲)을 벗어 던지고  
나는 창 앞에 다가선 채  
바깥 길을 달린다.

집과 집 사이를 누비고  
밭과 벌판을 지나  
정거장으로 통하는 길엔  
살아나는 맥박이 있다.

## 폭풍 전야

번개가  
수직으로 경련을 하고,

노여움이  
머언 하늘을 굴렀다.

뒷문 손잡이 위 거미줄이  
방 안의 정밀(精謐)을 계량한다.

대낮인데,  
저녁 어스름이 깔린다.

누워버렸다가  
이내 일어났다.

늪집 고양이인지  
뒷문 창살을 긁는다.

까만 얼굴에  
두 눈이 불을 켜고 있다.

촛불을 밝혔다.  
밀고 싶어졌다.

## “시를 쓰는 사람은 시대에 살며 주소에서 호소하는 존재이다”

— 김용팔 시인과 대화 중에서 —

문인귀/시인

### 1. 성장기에서 만난 문학

김용팔 시인은 일제치하인 1914년 5월 6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사내대장부가 나이 15세가 되면 호패(號牌)를 차고 나라를 섬기는 것인데, 그러려면 한학(漢學)부터 깨쳐야 한다.”고 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동년배들보다 5년이나 뒤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나마도 부친이 출타한 틈을 타 만형이 데리고 가 입학을 시켰다. 그 후 소년 김용팔은 광주 시내에 있는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동급생들이 다섯 살이나 아래여서 무슨 일이나 앞장을 서게 되었다.



미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회장 역임.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제12회 미주문학상 수상(2003년), 시창작교실 〈시와 사람들〉 운영. 저서로는 시집 『눈 하나로 남는 가슴이 되어』, 『떠도는 섬』이 있다.

1931년 만주에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이 일어났다. 만보산사건은 당시 일본의 학정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집단 폭력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상하게 된 사건이다. 이 소식을 들은 김용팔은 몇몇 학우와 더불어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중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구타했다. 당시는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났던 직후라 경찰이나 학교가 학생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터여서 학교에서는 급기야 김용팔을 퇴학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김용팔을 아끼던 일인 작문교사에 게서 전갈이 왔다.

“교직원 전원이 너를 퇴학 처분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내가 내 목을 걸고 너를 구명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외출하지 말고 근신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말대로 우여곡절 끝에 복교가 되고 그때부터 작문교사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사는 수시로 김용팔을 불러 영시(英詩)를 골라주며 번역을 시켜보고 글을 쓰게 했던 것이다. 때마침 개교 10주년 기념행사에 일본 전국에서까지 작품이 모여든 가운데 김용팔의 작품도 기념문집에 실렸다.

## 2. 국어교사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상대에 응시했다. 시험을 마치고 게시된 모범답안지와 같은 답을 쓴 김용팔은 뿔 듯이 기뻐으나 낙방을 하게 된다. 원인은 만보산사건 등 민족주의적 행위의 족적 때문이었다. 김용팔은 그 길로 짐을 꾸려 만주로 갔다. 한국인들이 개간하고 있는 벽지로 들어가 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2차대전의 기미를 알게 되어 서둘러 귀국한 다음 이곳저곳 떠돌며 숨

어살다가 8.15 해방을 맞았다.

그 후 서울로 올라가 서울대학교의 이희승 교수의 천거로 경기여고 국어교사가 되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경기여고, 수도여고, 숙명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경기여고교사 시절 교직원끼리 좌우가 갈려 살벌했다. 그때 독립운동가 장덕수 선생의 부인인 박은혜 씨가 교장이었는데 좌파 교직원들의 저항을 김용팔과 합세한 6명의 교사가 물리치고 박은혜 교장을 지켰다.

김용팔 시인은 경기여고를 떠나 수도여고로 옮겼다. 때마침 전국학도호국단 주최 학생들 문예콩쿠르가 있었는데 그땐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구분하지 않고 같은 자격을 주었다. 김용팔 선생이 지도한 수도여고생 중 두 학생이 소설과 시에서 각각 1등상을 수상했다. 소설부문 1등에 최원희(뉴욕 부록크린대학 교수) 학생이, 그리고 김혜숙(시인) 학생이 시 부문 1등상을 받았다. 그 후 6.25 사태와 1.4후퇴의 격랑을 지내고 숙명여고에 스카웃되어 갔다. 숙명여고 시절,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주최 전국학생문예콩쿠르가 있었는데 이때도 소설과 시 부문을 김용팔선생의 제자들이 차지했다. 소설 1등상은 함안자(최근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침) 학생이었고 시 1등상은 조묘연이라는 학생이었다.

### 3. 본격적인 문학활동

김용팔 시인이 1.4후퇴 피난할 때 배낭 하나만 가지고 무개화차(無蓋貨車)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 잠시 객차속으로 들어가 몸을 녹이고 돌아와 보니 배낭이 없어졌다. 모두가 가

난했던 시절이었으니 일반적인 귀중품은 없었지만 그동안 모아두었던 원고뭉치가 사라진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작품들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문인들이 모이고 있는 ‘금강다방’을 찾아가 많은 문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교분을 가졌던 문인들은 조지훈, 박목월, 조연현, 장만영, 김영호, 김상옥 등이었다.

1952년 11월 허윤석 작가가 주간으로 있던 광지사(廣知社)에서 첫 시집 『廢墟』를 출판했다. 이때 文藝誌, 靑鹿派 등의 주선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졌고 이를 계기로 『文藝』와 『現代文學』에 작품 발표를 하며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 건국대학교 국문과에 편입했다.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시론 강의를 맡았다. 이때 양주동 박사와 백철 박사로부터 근대 상징주의를 사사받았으며 1966~67 국문학박사과정을 이수했다.

그 후 영국으로 가 펜클럽회원들과 교분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창작 경향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때부터 그의 작품에 대화적인 호흡이 나타났으며 장시(長詩)로까지 뻗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주변의 생활현실에 대해 안팎으로 확고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용어의 미와 시각, 심상에 대해 열정과 기교를 보이는 놀라운 감성도 있다.

그는 영원의 정기(精氣)에 의해 깊은 고뇌에 시달리는 영겁을 시 속에서 호흡한다. 그는 창작성에 원숙해 있고, 선율적이며 고도의 의미성을 띄운다. 그는 사려가 깊고 신비적 초자연적이며, 설새없이 인간성의 궁경(窮境)에 생각이 미친다. 김 시인의 다원적(多元的)인 경험과 예술적인 정묘성은

필연적으로 그를 최우수의 다예적(多藝的) 천재로 만들고 있다.”

- 시문학사 간 『해외 시』 p.40 상단 부에 인도의 Syed Ameeruddin 교수의  
「김용팔 시의 분석」에서

#### 4. 문학관

Syed Ameeruddin 교수는 “그는 영원의 정기(精氣)에 의해 깊은 고뇌에 시달리는 영겁(永劫)을 시 속에서 호흡하고 있다./He breathes in his poetry-The Eternal deep, haunted forever by the Eternal mind.”고 했다. 김용팔 시인 자신도 영국에 갔을 때 자신의 작품에 대화적인 호흡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 호흡은 시인이 시를 통해 사물의 원초적 정기를 대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또한 스스로를 사물화하여 그 대상을 호흡하는 것이며 그것은 일방적이 아닌 나눔의 미학(대화)으로 이루어내는 영원한 자유의 미적 추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의 자신의 시는 시재(詩材)의 대부분이 여항(餘項)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뒤지는 그러한 양상인 것이며 시를 쓰는 사람은 시대(時代)에 살며 주소(住所)에서 호소하는 존재라는 소신으로 시를 쓴다고 했다. 따라서 시어가 엄밀히 선택되고, 이미지가 선명하고, 내용이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로서 논리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시에는 템포(tempo)가 생기고 톤(tone)이 있고 리듬이 경쾌한 보조를 띄우게 되는 것으로 이런 일들이 모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비경에서 경이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일 것이며 또한 시인은 이러한 도취를 먹고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존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 기다리고 있는 그



존재를 찾아내야 하는 소신으로 시작에 임한다는 것이다.

## 5. 미국에서

김용팔 시인은 1970년 12월에 미국에 왔다. 도미하게 된 목적은 이민이 아니었다. 서울대에서 간호학을 마치고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마취학을 전공한 만딸이 동생들을 불러들이고 싶어 해서 처음에는 1남 4녀를 만딸에게 데려다주고 돌아갈 작정이었다. 그래서 마침 제2시집 『두꺼비의 말』 출판기념회가 서울에서 있어 많은 친지들이 모였지만 미국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한국을 떠났다. 막상 미국에 들어와 보니 만딸에게 동생들을 다 맡긴다는 것이 용이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마침 일본 도쿄은행 뉴욕지점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 팔자에 없는 은행직원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미국 정착은 자신의 영문시의 실험계기도 되어 영시창작과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 물론 한국 문단에도 계속 작품을 발표하여 교류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미주문인협회를 통해 이곳 한국인문단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 외롭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김용팔 시인과 나눈 대화의 마지막에 그는 후배들을 향한 애정 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미주교포문단이라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미주한국문인협회뿐이어서 협회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인협회가 활발해지고 작품 수준도 높아지고 특히 『미주문학』이 年刊에서 季刊으로 바뀌어 경하할 일이다. 그러나 간행(刊行) 담당자들이 바빠 물리다가

자신의 일에 공간이 생길까 염려가 되며 지면이 많아지면서 작품들의 수준이 희박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나는 2003년 김용팔 시인과의 대담을 한국의 『창조문학』 여름호에 게재한 일이 있다. 그때 그와의 대담이 없었다면 이만한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

평소 그의 소탈한 대화법이 선생의 새까만 후배(광주서중)인 나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었음을, 그를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이다.

몇 년 전 『김용팔 시 전집』을 준비하신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부지런하신 분, 소탈하신 분, 하얀 정장에 백구두 신사. 멋쟁이 좋은 어른이 이제 그의 시 「매」가 되어 천상으로 훨훨 자유하셨다.

선생님,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저 푸른 여운 향하여... - 한 시인의 고독과 높음

-고 김용팔 선생님 존전에

곽상희/시인

선생님 새처럼 가셨네요. 오래 머물으셨던 자리 두시고 훌훌 가셨네요.

한 세기 꿈꾸시던 그 하늘에서 지금은 눈보다 더 찬란하게 새의 깃털보다 더 가벼웁게 아름다운 詩로 사시겠지요.

시를 위한 고뇌와 방황은 바리바리 부려놓으시고 천국 기둥 한 자락 빛나시겠지요.

많이 아껴주셨는데 받들지 못해 가슴에 못질 박으며 사죄의 부복 끝없이 올립니다.

선생님, 따님의 부탁을 받고 서둘러 몇 글 올리면서 선생님의 옥시를 잠시 더듬어 보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현대문학』으로 등단. 뉴욕 현대 예술 아카데미 등에서 다년간 문학강의. 제1회 박남수 시인 대상. 시집 5권, 영시집 1권, 수필집 3권, 소설집 1권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먼저 선생님의 죽음을 초월하신 신비를 펼치신 「봄」에서

한 마리 작은 나비/어떻게 이 작은 미물이/호젓한 축구장을 가로지를/엷  
두를 벗을까/나풀나풀 나풀나풀

그리고 다음은 「메아리」에서

어느 맑은 날/저 푸른 여운 향하여/학 같은 울음을 터트리고 싶어/나는  
이 좁다란 길을/올라야만 하는 것이다

외람되오나 선생님의 조밀한 시세계는 우리凡人이 말끔 터득하  
기에는 참으로 깊고 높은 곳에서 머물으셨지요. 국제 시인 아카데미  
회장은 선생님의 시를 평가기를 천부적인 창작적 천재이어서 감각이  
예민하고 침잠적이며 진지하고 신비적 초자연적 고도의 영상학이라  
고 말했어요. 불초 저도 그 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선생님의 옥시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불문학도로서의 불초 저의 마  
음은 ‘감각적 법칙이란 정신적 법칙의 가시적 표현에 불과하다’ 라고  
한 조셉 드 메스트르의 주장에 가닿았고 또 그에게 저도 십분 동감하  
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시가 초현실 초자연주의의 흐름을  
유지하시고 계셨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 선생님의 옥시  
를 대할 때 제게 온 아련한 그리움과 반가운 친밀함 같은 것이 저의  
의식과 무의식의 저 깊은 틀 안에 있었음을 지금 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러한 선생님의 은밀한 시의 구조 구석구석에는 때로는 꼭 꼬집어  
낼 수 없고 때로는 느낌으로만 온 가슴으로 퐁당 잠길 수 있는 상징의  
멋과 섬세함과 지적 오만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러한 분위기가 선

생님이 많은 독자에게서 공감을 받지 못하시고 외롭게 시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선생님이 하여 어디까지나 그 외길을 자존감으로 걸어가게 하신 힘이며 꿈이 아니었겠어요.

선생님, 1980년대 초 중반 뉴욕주문화예술국과 뉴욕시문화국의 재정지원으로 그 당시 선생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제가 주최하던 ‘뉴욕한미문협’ (Korean American Literal Association of N Y)의 한국문화원에서 뉴욕 일원 시인들의 자작시 낭송으로 동참한 가운데 제 부탁으로 선생님께서는 ‘현대시와 상징주의’란 주제로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전 그때 ‘역사에 대하여’란 제재로 시와 역사의 상관관계를 조금 건드렸지요.

그 후 23년도 더 지나버린 지금 참으로 화살처럼 사라져버리는 세월이란 말이 너무나 가슴 저리게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신 지금, 전 애절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고도의 영상적이며 깊고 다색적인 선명한 알레고리의 시문학 ‘현실’의 문 앞에서 시인으로서 미세한 떨림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제가 선생님의 시세계를 더욱 심오하게 투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제 자신의 미약함과 그에 대한 자격지심, 죄스러움 그리고 그 어떤 의무감과 책임성에서 오는 스스로에게 주는 질책 탓도 있겠지요..

선생님, 지금 저는 선생님 필생의 시작업 앞에서 언젠가는 독자와 우리 후학들이 깊은 경이와 기쁨의 손뼉을 칠 수 있다면 하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분명코 우리 시문학사에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 우리를 새로운 감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한 역사의 파도 앞에 인간사회의 철장의 벽과 같은 비극적 부조리 앞에 한 사람 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가시적으로는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럼에도 선생님, 그 미미하고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역학이 한 사람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다면 그를 위대한 시인이

라 부르고 싶군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천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가능하니 말입니다. 선생님, 시인은 그런 것을 위해 그의 평생을 다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니 시인은 자유인이고 행복하다는 말과 함께 그러므로 시인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작고 겸손해야 하는 진리를 우린 잊을 수 없다 말하고 싶군요.

선생님, 차제에 제 평소의 느낌을 말하고 싶군요. 문단 전반에서 우리들이 타인의 시와 문학에 대하여 특히 자신과 관계가 멀고 다른 의미망과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문학에 대하여 보다 깊은 겸허와 열린 태도로 가질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 말입니다. 아니 우리 시인들이 타 시인의 시세계를 좀더 깊은 이해 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선생님의 살아생전에 우리 후학이 그럴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시단은 좀더 투명한 명료성과 깊음과 풍요로움을 터득할 수 있었고 선생님께선 덜 외로울 수 있었으리란 자각을 쓸쓸하게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선 저에게 고개를 완강히 흔드시며 말씀하시네요. 참된 문학을 하려면 고독해야 한다고, 고독이 그의 참글의 양식이니라고. 그리고 그의 문학의 참가치는 후세가 진정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이니, 그런 것이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고. 참 문학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독한 자라고. 그것을 자각하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2천 년 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주의 삶처럼, 그래서 우린 힘을 얻어 고독의 불행 속에서 기쁨으로 문학의 길을 간다고,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창조의 길은 스스로를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하여 바치는 일이며 부활을 위해 죽는 길이라고.

시인은 한 편의 시의 완성을 위해 준비하며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한 편의 시가 어느 날 그에게 오는 날 그는 감동하며 울며 천사의 기

뽐을 누린다고. 그래요, 시인은 그 한 편의 시 속에서 자신의 완성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술이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against’가 아니고 철저한 ‘for’가 아니겠어요. for를 위한 정신과 삶을 통해 예술의 감동은 깊게 울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술의 길은 철저한 자기 기권의 길이지요. 그가 자기 기권을 했을 때 그 텅 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창조의 드맑은 빛줄기, 그 빛으로 그는 어둔 마음들을 비추는 것, 그것이 참 예술의 길이라고. 그런데 선생님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글 쓴다는 사람이 많으냐고, 선생님은 그 곳에서 지금 제게 힐난을 하시네요. 왜 그리 위선자, 모방자, 거짓 행세가 많으냐고, 왜 고통 없이 문학을, 고통의 연자맷돌을 팽개치고 온당한 값을 치루지 않고 문학의 빵을 만들려 하느냐고, 그러니 그 빵 됴됨이가 오죽하겠느냐고. 그것이 참 예술의 길을 굴곡지게하고 흐리게 하고 세상의 빛을 어둡게 하는지 모르느냐고, 옛날 우리들의 선조들은 그랬지 않았다고. 그렇군요 선생님, 정말 할말이 없어요. 문학뿐 아니라 모든 것이 변질되고 변질된 것이 뻔뻔스런 얼굴로 빛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참 슬프네요. 그러나 시만은 문학만은…… 하고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선생님, 시인이란 잠 못 이루며 써놓은 한 편의 시에서 세상의 어떤 보화를 얻을 때 보다 더한 기쁨과 해방감을 얻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이 있지요. 전 지금 마중기 시인이 하신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시 한 편을 만들어 놓고 올 수 있는 시인, 시인은 한 편의 시와 자기의 목숨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태도로 시의 길을 가야한다는 그의 고백적 언질은 저의 심정을 깊은 동감으로 울려주었지요.

저에게도 시는 ‘아픈 사랑’이지요.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왜 시를 씁니까? 문학을 합니까? 적당히 시를 또 그렇게 소설을 수필을 한다면, 스페아 시간에 적당히 편안하게 하다가, 타인이 피 흘리며 쓴 작업에 칼질이나 하며 재미있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그가 당당히 시인이고 수필가고 소설가라 생각한다면…… 아니, 그 모든 명찰이 왜 꼭 있어야 하는지… 그냥 시를 쓰는 사람 등등하고 시와 문학 앞에 경외하며 자신을 낮추고 사는 그 세계… 전 지금 그런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그래요, 참 문학을 꿈꾸는 이들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문학이면 문학이지 왜 그 앞에 ‘참’이란 수식어가 들어가야 하느냐고, 선생님은 또 힐난하시네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너무 그렇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처럼 행세하는 요즘 어쩔 수 없이 저도 한번 써 본 것에 지나지 않으니 너무 선생님 나 무라시지 마세요.

그래요 선생님, 전 지금 ‘참’을 두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모든 길을 버리고, 그 안일하고 좀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안락한 삶의 길을 조건 없이 버리고 어찌해서 가시덤불처럼 지성이 탁하고 무서운 고독이 기다리는 그 길을 진작에 알면서 이 길을 기꺼이 택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넉쿨이 나무에 매달리듯 시의 나무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 매달리는지. 끝없는 고독한 그 길을 왜 기꺼이 가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문학의 길이 그토록 고독했음은 문단 외에서 오지 않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문단 내에서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전 부끄럽고 선생님께 감이 제가 머리를 숙여 사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우리 사랑하는 문인들이 이 가시 엉덩퀴 땃힌 고개를 기꺼이 넘을 수 있다면, 저쪽 깊고 높은 하늘에는 미주문단의 아름다운 문학의 꽃이 필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해보면서.



‘문학’을 진정 사랑하는 이들이 남의 글 한점에도 그 너머에 감추인 글을 쓴 이의 마음과 그 이유를 캐어내려는 이성과 가슴을 안을 수 있다면, 문학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진지하게 서로를 향해 연민과 격려와 이해로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다면 (진정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까지 왜 오늘 몽클하게 소망해 보는지, 선생님…… 고독한 시문학의 성域 쌓기를 말없이 불평 한번 없이 다만 날카로운 눈빛의 침묵만으로 일관하시다가 가신 선생님의 그 모습이 지금 선명히 떠오르며 가슴이 실없이 차오르는 걸 어찌할 수 없네요. 그러나 선생님은 시로 행복했고 시로 여유로웠고 시로 자유의 고공에 머물었으리라 믿어요.

그래요, 선생님의 가슴은 참으로 따뜻했지요. 대화하실 땐 티 없는 소년의 웃음을 먹음으시고 잔잔히 소견을 말씀하셨지요. 그때 전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편이 떠올랐어요.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네가 본 건, 먹구름/……/네 머리 위 쇠향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愍)을 알리라/…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물론 선생님의 시세계를 그 분과 빗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출발도 끝도 방법론도 그 분과는 전혀 다른 시세계를 가꾸신 선생님은 감성을 예민하고 따뜻하게 다루시는 지극한 지성을 바탕으로 하셨지요.

“머언 먼 뒷날/석류알보다 곱게 터질 찰나를 위하여/눈 귀 입 코 다 버리고/ 오로지 기억만 가는 마음//더운 해, 차운 달, 속삭이는 별도/내 맘은 몰라//하늘 땅 안에 당신만을 기다리는/내 마음의 문”

- 「바위」 후반부 부분

“한 마리 나비만 지나가도/얼룩이 지는 나신,/잃어버린 일기를 생각하  
듯, 너를 위무하고 싶다!//그러나 널 돌보기엔, 내가/너무 정염적情炎의인  
것 같다.”

- 「목련」 부분

“달팽이의 비밀은 /그의 머릿뿔에 몰려 있다./그것이 어떤 비밀의 레이  
더에/걸리곤 하는 것 같다.//밤이 깊어지면/머릿뿔이 등불처럼 인도를 한  
다./그러면 달팽이는 목마르게 길을 서둘며,/즐거움보다는 환상을 더 쫓는  
다.//어느 날 밤 달팽이는,/한 시인의 뜰에 가 있었다./그 시인이 미치도록  
좋아하는/조그만 바윗돌 위에 앉아 있었다.//밤이 새도록/그저 앉아 있었  
다.//……이러한 달팽이의 동정은/그가 모든 시간을 음미하고 있기 때문  
이다./순간이 영원을 함축하는/도정道程위에 있는 것이다.

- 「달팽이에겐 가는 곳이 있었다」 하반부

미치도록 좋아하는 조그만 바윗돌 위에 밤이 새도록 앉아 영원 속  
에서 좁게 닫혀진 시간이란 괴물을 사랑스럽고 평화스럽게 음미하는  
달팽이... 이 얼마나 고귀한 시의 발상이며 표현인가요.

별거벗은 고목 밑에/소낙비를 피하니/하많은 이야기들/방울방울 던는데  
/보이잖은 나뭇잎마저/한아름이 안기네

- 「古木」 전문

선생님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의 옥시를 충분한 재료 없이  
극히 한계적인 내용만을 이용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제 말 많이 한 것 용서하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참으로 엄숙하게 선생님의 관 앞에 서서 선생님의 터득하신 시의 명성을 음미하며 서둘러 선생님의 삶과 고뇌와 꿈의 상징을, 시와 세상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창조주와의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더듬어 보고 있어요. 누가 감히 선생님의 깊고 오묘한 시 세계를 선불리 만질 수 있겠습니까만. 바라옵기는 언제 누군가가 선생님의 시의 천상에서 남기신 은밀한 비밀의 방을 후세를 위해 활짝 열어놓기를 소원해요.

선생님, 이제 <사랑만을 저작하는 은밀한>, 언제나 맑고 푸른 그 곳에서 학 같은 울음 터트리시며 행복의 나래 짝악 펴시옵소서, 영원히...

불초 곽상희 삼가 올립니다. 2008년 2월 7일 뉴욕에서.

## 김용팔 시인의 첫 시집 『폐허』序文'에서

故 박목월 시인

우연한 기회에 김용팔 씨를 알게 되었었다. 그는 시인이라기보다는 교육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허나 詩考(시고) 문치를 늘 가방 구석에 넣고 다니는 생활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작품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인생에 대한 성실과 부드러운 정서가 시를 쓰기보다는 하나의 호소로서 직무의 여가에 서서히 이룩한 작품들이다. 작품에 대한 이런 여유있는 태도는 실로 시인의 말석에서 시인이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끊임없는 자책의 채찍을 맞는 木月같은 사람의 눈에는 일종의 선망조차 일으키는 것이다.

가령 이런 분이 우연한 기회에 모인 작품의 그 수량이 한권의 책을 이루기에 족하고 또한 뜻있는 이의 변통이 있어 시집을 마련하고 또 그 시집이 서점에 나가기보다는 친한 분의 수중에 더 많이 남게 될 때 이것은 아름다운 풍습이 되기에 넉넉하다.

이럴진대 우리는 그 작품의 우열보다도 저자의 아름다운 심정을 갖 있게 사야 할 것이요, 또 그 결과가 능히 拙한 시인의 것을 능가할 때

는 더욱 경하할 일이다.

사람 평생을 60년 쯤만 잡더라도 좋다. 6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왠 草露(초로) 같다하지만, 살고 보면 그래도 꽤 긴 세월이다. 한데, 그 긴 세월이 각종의 방법으로 삶을 영위할 것이나, 그러나 아무리 醉生夢死(취생몽사) 한다기로, 한권의 시집쯤 가질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성의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보냐.

氏は 이미 교육가로서 착실한 기반을 가지면서, 한편 젊은 정열에 사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우연스러운 과실을 모은다는 것은 확실히 경하할 일이다.

위의 이야기는 氏를 지나치게 교육가로서만 대접한 것 같다. 그러나 시 정신이 燃燒(연소)하는 교육가였기에 일종 諦觀(체관)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며, 그 여유는 문학을 전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바랄 수 없는 너그럽고 향기로운 품격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나를안고/ 자지러지도록 외로웠다.

갈대로 배를 엮어/떠워보냈다.

자꾸만 자꾸만/나를태워 보냈다.

- 「낙동강변」의 일절

이 조용한 경지. 이것은 이 세대를 호홉하는 젊은 지성이 처참한 고뇌 끝에 얻은 인생 긍정의 담담한 심정이다.

외 마리 가마기도 깃드는데/貞아 오렴/우리사/정든 주춧돌에 앉아/이  
한밤을 새워야지

- 「폐허」의 일절

이 처참한 부르짖음은, 오히려 문학적인 수사의 고된 고역을 겪고 나온 아름다운이기 보다는, 애정이 그득한 육성에 가깝다. 이런 표현의 경지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수목과 같이 정결한 감동과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는 詩에 조금하지 말기를 바라며 또한 시와 멀어지지도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담담한 관조적인 시적 태도와 심정에서, 오히려 인생에 대한, 혹은 문학에 대한, 더 큰 소산이 있을 것을 바라기 때문이며, 축복을 드리는 심정에서 몇 마디, 책 머리를 더럽힌 것이다.

## 김용팔 시의 분석

— by Prof. Syed Ameeruddin

Founder-President

International Poets Academy

김용팔 씨는 세계시단의 현대시 분야에서 빛나는 스타로 출현하고 있다.

그는 색다른 시인이다. 시의 주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나, 생의 시야에 있어서 남과 다르고, 고귀성이 있고, 매혹적이고 사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도전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시의 방향에 대해 심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의 시에서는 사회적, 정신적, 초자연적, 심리적, 인도주의적 관심이 베어나오고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학자이며 예술가의 기질이 풍성한 작가이다. 그는 천부적인 창작의 천재여서 사물이나 환경, 주변의 인물들을 관찰하는 데에는 비범한 감각이 있다.

그의 모든 시 작품은 자연의 신비를 열어 헤치고 인생의 숨은 진실과 환경 등을 탐색하는 데에 끊임없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자기 주변의 생활환경에 대해 안팎으로 확고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용어의 미와 시각, 심상에 대해 열정과 기교를 보인

놀라운 감성도 있다.

그는 영원의 정기에 의해 깊은 고뇌에 시달리는 영겁을 시 속에서 호흡한다. 그는 창작성에 원숙해 있다. 김 시인의 다원적인 경험과 예술적인 정묘성은 필연적으로 그를 최우수의 다예적(多藝的) 천재로 만 들고 있다. 그는 언어의 섬세한 촉감을 가지고 있다. 그의 문체는 간 소하고 직선적이며 투명하고 경묘하다. 그의 경험은 우아하고 힘차고 급류와 같이 압도적이다.

「아지랑이」는 우수한 단시로서 독자의 가슴에 신비감을 불러 일으 킨다. 시인은 여기서 땅 위로 날아오르고 싶은 정신적인 동경을 표출 하고 있다. 세계시 광장의 시 분야에서 사람의 마음 들뜨게 하는 신비 의 요소를 이토록 아름답게 탐색한 시인은 아주 드물 것 같다. 사상적 전개, 주제의 표출, 기교적인 시의 작성 등, 한 마디로 그저 출중하다 할 뿐이다.

아지랑이는/땅이 하늘을 부르는 소리/소녀야/...../소쩍새 아스라이 울  
적마다/진달래 한 떨기씩 피우고 싶은/내 아쉬운 입김

「봄」 또한 우수한 시다. 시인은 자연과 주변에 대해 뛰어난 관찰을 하고 있다. 자연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 투명한 언어의 민감성과 계기 에 빛나는 상상력이 있다. 봄은 자연계에 있어 순연한 기쁨을 일으키 고 기분을 들뜨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나비의 묘 사, 아스프레한 공간에서 탄 곳으로 가로질러가는 “오로라 베일을 헤 치고 눈부신 메 뿌리 위” 등의 묘사는 그저 놀랍고 되올려오는 환상시 라 하겠다.



한 마리 작은 나비/어떻게 이 작은 미물이/호젓한 축구장을 가로지를/업  
두를 댈을까?/나풀나풀 나풀나풀

「폭풍전야」, 또한 독자를 자극하고 소름까지 일으키는 함축성이 있어 외경하게 하는 환상적인 시다. 시인은 죽음의 신비를 펼쳐 그 뒤편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서로 통정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위협, 공포, 신비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달인이다. 시인에 의해 묘사된 환경, 시간, 장소 등은 “먼 하늘 뒤흔들며 구르는 노여움”으로 표상되고 있다. “거미줄이 방 안의 정밀을 계량하고 있다” 든가, “고양이 불을 켜 눈” 등등이 무서움, 위협, 긴장, 신비, 매혹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매」, 또 하나의 수작이다. 투명한 묘사, 경묘하고 회화적이며 고도의 예술적이어서 비범하달 수밖에 없다. 매에 대한 시인의 동정과 관심이 주목된다. 시가 매의 고향(苦境)을 그림으로 보듯이 묘사하고 있다. 불쌍한 생물, 시인의 집 코너 테이블에 앉아 온 겨울을 죽치고 있다가 어느 맑은 아침 시인이 창문을 열자 알겠다는 듯이 날아나가 구름을 뚫고 제 길을 간다. 더욱이 이 시에서 중요한 점은 떨리는 심상과 빛나는 암유를 쓰고 있어 고도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폭넓게 가시적이다. “나의 매는 그림 있는 카펫 위에 무늬를 수놓고 있었다”와 같은 표현은 한 마디로 최면적이다.

겨우내 나의 매는/코너 테이블에 앉아/그림 있는 카펫 위에/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메아리」는 형이상학적, 영적인 함축이 있어 또 하나의 눈부신 시

다. 세계 시단에서 ‘근대 인간의 영적인 동경’에 대하여 쓴 시인이 있었다면 이 시는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시의 구조적 기교와 제작상의 주효가 성공적이다. 김 시인이 그의 형이상학적 신비적 체험을 묘사할 때는 영국의 윌리엄 브레이크나 애란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와 비슷한 데가 있다. 시인은 말하기를 ‘자기 낮이 하나 있어 나를 지켜주며 이 우주를 창조한 최고의 현실’이라 하고 있다. 시인은 실재없이 영적 존재로서 그의 생(生)에 정신적 깨달음을 비원하며, 그의 보호자를 시각화하고 맑은 하늘에 메아리를 향하여 학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은 것이다. 이는 실로 눈부신 신비적 체험이라 하겠다.

어느 맑은 날/저 푸른 여운 향하여/학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어/나는  
이 좁다란 길을/올라야만 하는 것이다

「목련-1」 또한 수작 시이며 자연을 신비적 광휘와 심미적 장려 속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 시에서 우리는 자연 묘사에 관한 한, 시인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영국의 시인들 윌리엄 워드워드나 존 키츠,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 윌트 휘트먼까지의 영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시인이 목련꽃을 그렇게 생생하게 반짝이는 상상력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로 시인이 교감적으로 꽃에 대해 인간적인 정념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잃어버린 일기를 생각하듯/너를 위무하고 싶어지는구나/그러나 널 보기엔  
내가/너무 정염적인 것 같다

「시냇물」, 이 시는 예술적인 광채와 상상적인 공명이 배어나게 하

는 또 하나의 환상적인 시다. 자연의 묘사와 미의 순환이 캔버스 위의 그림처럼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시냇물이 “봄이 오고 있음을”을 섬광적인 방향과 고동적인 구경거리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연현상의 광휘에 투명한 경험을 보이고 있다. 이 시에서 “사향노루가 형량을 씻고 봄 아가씨가 바위에 향기로운 옷을 벗어놓고 겨울을 씻는다”는 그 심상을 주목할 만하다.

한적한 산에/고인 물이/빨간 진달래꽃을 띄우면/봄 아가씨도/옷을 벗어  
걸치고/겨울을 씻는다

「귀뚜라미」는 하나의 환기적인 시로서 죽음 같은 환영과 그늘 같은 낮으로 무언지 쫓기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 시인은 이런 불안하고 쫓기는 분위기를 시 속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빚어내는 뛰어난 명장이다. 그의 모든 작품들에는 시적 의식과 제작에 있어 자극적이고 영묘하고 무서움에 떠는 신비적인 외경이 들어 있다. 이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자질이다. 또한 그 자질이 그를 세계 시단의 현대시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시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개가 발작적으로 짖고 있고, 달빛어린 영창에 가랑잎이 무너지고, 그리  
고 베갯머리 찬 벽에 스스러운 낮이 운다.

등등은 그저 찬탄할 수밖에 없으며 이 시가 지니고 있는 두려움, 고  
뇌, 매혹, 감격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인연(因燃) 일다/저놈은/어느 공굴(空閨)의 시름을/내 벽 너머서 우는 것  
이라

「크리스마스 우수」, 이 시 또한 가슴에 와닿는 작품이며, 철학적, 인도적 함축이 있다. 그는 심각한 사회적 도의에 관심이 많은 시인이며, 이 시는 들떠있는 크리스마스의 밤, 한밤중의 거리에 홀로 버려진 가난한 아이에 대한 애궁, 동정, 위자 등의 관심을 환기한다. 크리스마스 밤이란 사랑, 친절, 친구, 의식, 용서 등을 상징한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밤을 여러가지 찬란한 불빛과 허식의 구경거리로만 지새고, 이웃 사이에 사랑도 자비도 관심도 없다. 사실 크리스마스 저녁엔 서로 인도주의 신봉자로서 사랑, 동정, 배려, 관심 등의 고귀한 자질을 길러야 한다. 그의 시에서 김 시인은 이러한 인간적인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판매원 오르란도 크루즈가/그 여아를 발견했을 때/아이는 내던져진 스테리오 스피커를/붙잡고 매달렸다/비에 젖어 있었으며/무서워서 떨고 있었다/크루즈의 가슴은/노여움에 막히고 있었다/아무리 한심한 인간일지라도/크리스마스 밤에/어린애에게 이럴 수가?

김 시인은 현대적인 표현 형식으로 상상적이고 의욕적인 환상을 말하는 의의 없이 높은 지각을 가진 시인이다. 그는 다른 중요한 시인들이 세대의 한계 위로 올라서기를 바라며 보다 항구성이 있고 침투적인 관찰과 반응 속에서 있고자 한다. 그는 수준을 훨씬 넘은 시인이며 모든 본질적인 위광(威光)과 분격(憤激)을 아는 지상과 심라만상과 우주의 시인이며, 작품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혀질 시인이다. 그는 의문을 시원하게 풀며 객관적인 세상에 의미를 제공하는 수법이 있고, 놀라운 묘미와 민감으로 이념과 언어를 다룬다. 대체로 그는 고답적인 세상에 뛰어난 시를 주었고, 앞으로 올 세대의 독자들의 기억에 머뭇거릴 깊은 사상을 지니고 있다.

##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다시 뵙는 그날까지……

캐더린 조(본명: 김연숙)

저희들이 아버님의 어린 자녀들이었을 때, 아버님은 항상 엄격하셨고, 너무도 완벽한 것만을 사랑하셨기에, 아버님은 저희들에게 성벽과 같으셔서 가까이 갈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의 높은 이상도, 고민도, 그리고 슬픔도, 좌절감도, 회한도. 무엇이 아버님을 술에 취하시게 하고 밤늦게 돌아오시게 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부모가 되고, 인생의 높은 파도 물결과 싸우면서, 인생의 의미를 배우다 보니, 아버님의 슬픔이, 좌절이,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천재의 높은 이상이 땅에 떨어진 새의 날개죽지처럼 꺾일 때, 퍼득이며 날지 못하고 슬픔과 좌절 속에서 넓은 창공만을 안타깝게 응시하며 비상의 자유를 목마르게 그리워하는. 그래서 아버님의 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이상을 향한 그리움의 범벅이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눈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셨습니다.  
고목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한 바위에 미치도록 매료되시는가 하면  
연약한 나비의 날갯짓에 몹시 놀라시며 천년 만년 움직이지 않을  
듯한 달팽이와 밤을 새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사랑에 빠  
지기도 하셨지요.

정적이/ 나의 방에 꽉 차면  
난/ 한 방울 향수를 /기슭에 찍어 바른다.  
정적에의 윙크/내 생명의 예절이다.  
귀청에 울려오는/별레 울음은  
가을 뜨락 가득한/맑은 소나타  
어느덧 나를 이끌어/스켈조로 옮기더니  
내 마음은 구름을 타고/메뉴엣 춤을 춘다.

- 「제 3악장」에서

아버님. 당신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셨는지요. 그 의미를 아시고  
자 몸부림치시면서 매 순간을 사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어이없이 그  
무서운 병마에 잡히시어 맥없이 쓰러지셨습니다. 남들은 장수하셨다  
고 하지만, 할일이 남아 있는 아버님께 그 말이 무슨 위안이 되시겠습  
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괴로움 내려 놓으시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그러  
나 영원히는 마십시오. 창조주 아버님이 기름부우신 왕, 그리스도께  
서 죽은자들의 무덤을 여실 때까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나자로처럼  
부활되어 일어나시는 날, 생명의 뜻을 깨달으실 때, 아버님은 슬픔으  
로 얼룩진 노래가 아닌 기쁨과 환희의 노래, 감사의 제문을 쓰실 것입

니다. 그리하여 아버님은 당신의 “매”처럼 창공을 훨훨 날으시며 아버님의 꿈을 펼치실 것입니다.

구름 속을 뚫고 나간 매는/ 눈앞이 환하게 트이자  
원형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바람처럼 제 길을 날아가고 있었다.

편집자 주 위의 추모글 중에서 Syed Ameeruddin 시인이 쓴 “김용팔 시의 분석”은 인도의 국제시인협회(International Poets Academy)가 발행한 《World Poetry 99》 제 6권 1호에 게재된 「김용팔 시인 특집」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모두 25pages 중에서 Syed Ameeruddin의 「김용팔 시인의 시 분석」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김 시인의 시는 그의 영시집 『Snail's Horn』에서 뽑은 작품들이다.